

잡아함 105. 선니경

날짜: 7월 10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34>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칼란다 대나무 동산에 계시었다. 그 때에 집을 나온 외도 선니는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와 공손히 인사 드리고 한 쪽에 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느 날 사문·바라문 혹은 채라카 혹은 출가한 이들은 희유 강당에 모여 이러한 이치를 이야기하였나이다. 즉 ‘푸라나 카샤파는 대중의 주인이 되어 오백 제자들에게 앞뒤로 둘러 싸이어 있었다.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지극히 슬기로운 사람도 있었고 지극히 미련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다달았을 때에도 그들이 어디로 가서 태어나리라고 그 스승은 예언하지 않았다. 다시 막칼리 코살라도 대중의 주인이 되어 오백 제자들에게 앞뒤로 둘러 쌓여있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슬기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다달았을 때에도 그들이 어디로 가서 태어나리라고 그 스승은 예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벨라티푸투라·아지타 카아사 캄빌라·카쿠다 카챠야나·니르그난타 나 타푸투라 등도 각각 오백 제자들에게 앞 뒤로 둘러 싸인 것은 앞의 사람들과 같았다’고. 그런데 사문 고오타마시여, 그 때에 그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나이다. 즉 ‘사문 고오타마는 대중의 주인이 되어 그 여러 제자들로서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있으면 곧 아무게는 저기서 나고 아무게는 여기서 난다고 예언하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먼저 의심이 생겼다’고 말하였나이다. 사문 고오타마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법을 얻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선니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의심하지 말라. 그는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 것이다. 선니여, 마땅히 알라. 세 가지 스승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어떤 스승은 현

재 세상에서 진실로 이것이 <나>라고 하여 제가 아는 데로 말하지마는 목숨을 마친 뒤의 일은 능히 알지 못한다. 이것을 첫째 스승이 세상에 나온 것이라 한다. 다시 선니여, 어떤 스승은 현재 세상에서 진실로 이것이 <나>라고 보고 목숨을 마친 뒤에도 또한 이것이 <나>라고 보아 제가 아는 대로 말한다. 다시 선니여, 어떤 스승은 현재 세상에 서도 진실로 이것이 <나>라고 보지 않고 목숨을 마친 뒤에도 진실로 이것이 <나>라고 보지 않는다. 그 첫째는 스승으로서 현재 세상에서만 진실로 이것이 <나>라고 하여 제가 아는 대로 말하는 것은 단견이라 한다. 그 둘째 스승으로서 현재에서나 후세에서나 진실로 이것이 <나>라고 하여 제가 아는 대로 말하는 것은 상견이라 한다. 그 세째 스승으로서 현재 세상에서도 진실로 이것이 <나>라고 보지 않고 목숨을 마친 뒤에도 또한 <나>를 보지 않는 것은 곧 여래, 응정등각의 말이다. 그래서 현재에서 애욕이 끊어지고 욕심을 떠나 모든 번뇌가 없어져 <열반>을 얻느니라.”

선니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나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매 드디어 더욱 의심만 더할 뿐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니에게 말씀하시었다.

“마땅히 의심을 더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매우 깊은 이치로써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워 모름지기 깊이 관찰하여 미묘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슬기로운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범부 중생들은 분별해 알 수 없는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중생들은 긴 밤동안에 잘못 보고 잘못 참았으며 잘못 찾고 잘못 원하였기 때문이니라.”

선니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나는 세존 앞에서 마음에 깨끗한 믿음을 얻었나이다. 원하옵건데 세존께서는 나를 위해 설법하시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슬기눈이 청정하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선니에게 말씀하시었다.

“이제 너를 위해 좋아하는 대로 말하리라. 선니여, 물질은 항상된 것인가, 항상되지 않은 것인가.”

“항상되지 않나이다.”

“만일 항상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만일 덧없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라. 그런데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로서 과연 거기서 <나>와 <다른 나>와 그 둘의 합한 것을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세존께서는 다시 물으시었다.

“어떠냐 선니여, 물질이 여래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이 여래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다시 물으시었다.

“선니여, 물질을 떠나서 여래가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을 떠나서 여래가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다시 물으시었다.

“선니여, 물질속에 여래가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선니여, 여래 속에 물질이 있는가. 여래 속에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선니여, 물질을 떠나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을 떠나서 여래가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선니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내 제자들로서 내 말을 듣고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 <나>가 있다는 만(慢)을 일으킨다. 그래서 완전히 평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을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쌓임>을 버린 뒤에도 다른 <쌓임>과 합하여 계속해 나느니라. 그러므로 선니여, 나는 예언 하나니 즉 ‘이 제자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이러저러한 곳에 난다’고 왜 그러냐하면 그에게는 남은 만(慢)이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선니여, 모든 내 제자들로서 내 말을 듣고 그 뜻을 능히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만에서 완전히 평등함을 얻는다. 완전히 평등함을 얻기 때문에 모든 만을 끊고, 모든 만을 끊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

에는 다시는 계속해 나지 않는다. 선니여, 이러한 제자는 이 <쌓임>을 버린 뒤에 이러저러한 곳에 다시 난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하면 예언할 만한 인연이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내가 그들에 대해서 예언 하여야 한다면 나는 ‘그는 모든 애욕을 끊고 생명의 맺음을 길이 떠나 바른 뜻으로 해탈하여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리라’고 예언 할 것이다.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만(慢), 과만(過慢), 집만(集慢), 생만(生慢)이 일어나는 것과 만일 그 만에서 지극히 평등하게 모든 교통을 관찰하면 곧 나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시자 선니는 티끌과 때를 멀리 여의고 법눈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 때에 선니는 법을 보고 법을 얻어 모든 의혹을 끊었다. 그래서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바른 법 안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되어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바른 법 안에서 집을 나와 범행을 닦을 수 있나이까.”

부처님은 선니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바른 법안에서 집을 나와 구족계를 얻을 수 있고 비구의 신분이 될 수 있느니라.”

그 때에 선니는 집을 나와 혼자 어떤 고요한 곳에 가서 방일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즉 ‘족성자(族姓子)가 수염과 머리를 깎고 바른 믿음으로 집을 나와 집이 없이 도를 배우고, 범행을 닦는 까닭은, 법을 보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증득하여,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생 몸을 받지 않을 줄을 스스로 알아 아라한이 되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선니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밟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